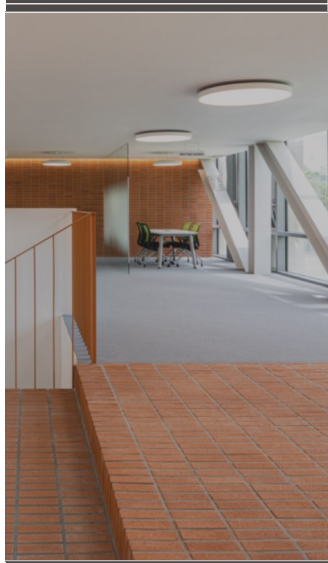


제43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서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다. 고층 빌딩과 오래된 골목, 첨단 산업과 일상
 상의 삶이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하며 ‘서울다움’을 만들어간다. 2025 제43회 서울
 특별시 건축상은 이러한 다층적인 서울의 풍경을 배경으로, 건축이 도시, 사람 그
 리고 시간의 흐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되문는다. 올해의 주제 ‘서울성(Seoul-
 ness): 다층도시(Multi-Layered City)’는 단순히 형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변
 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건축이 구현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를 중심으로 두었다.



대상 - 코어해체시스템

-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9
-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건축사무소: 주식회사 푸하하건축사사무소
- 설계자: 윤한진, 한승재, 한양규

‘코어 해체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건축의 중심에 고정되던 코어를 십자 형태로 분산시켰다. 이를 통해 구조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포스트텐션 보를 사용해 기둥 없는 개방형 공간을 구현했다. 중앙에는 세 개 층을 한 번에 잇는 ‘가위계단’을 두어 수직 이동과 시각적 연결을 강화했다. 1.5m 단위의 모듈화된 설비 계획을 바탕으로 공간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으며,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코어를 해체함으로써, 사람과 공간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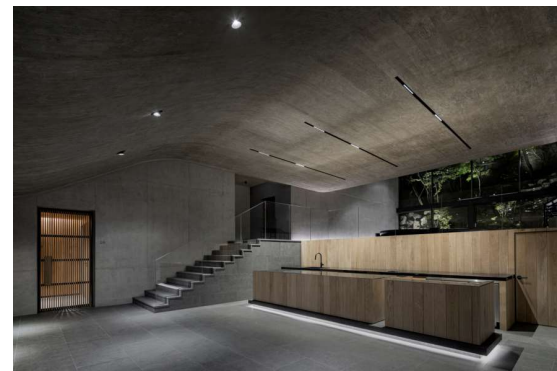


2.

최우수상 — 푸투라 서울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61
-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
- 건축사무소: (주)퍼스펙티브스건축사사무소, WGNB
- 설계자: 김원방, 백종환

‘푸투라 서울’은 전통과 현대, 도시와 자연이 맞닿은 지점에서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한 북촌의 풍경 속에서 한옥의 지붕선, 가로로 소나무, 인왕산의 바위와 하늘빛 등 서울의 시간과 장소성을 세심하게 읽어냈다. 건축가는 오래된 도시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연결의 방식’을 새롭게 사유했다. 내부 공간은 프로그램과 동선, 시선이 유기적으로 흐르며, 사용자의 해석과 참여에 따라 끊임없이 변주된다. 고정된 오브제가 아니라 열린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건축, 즉 시간의 흐름을 품은 유연한 공간을 지향한다.





3.

우수상 — 중등고등학교 원익관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7
- 용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 건축사무소: (주)프로토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나날
- 설계자: 윤선경, 조지현



‘중등고 원익관’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학습 방식을 담아낼 새로운 학교 공간의 모델을 제시한다. 기존 1980년대 교사동과 2000년대 체육관·강당 등 시대가 다른 건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단순한 증축을 넘어 학교 전체의 통합적 재구조화를 실현했다. 건물은 운동장과 나란히 남향으로 배치되어 순환 동선을 형성하고, 중정과 옥상정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외관은 기존 학교의 붉은 벽돌을 재해석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조화된 학교의 정체성을 구축했다. 또한, 내부는 강스팬 철골 트러스를 활용해 기둥 없는 개방형 학습공간을 구현했다.



4.

우수상 — 커피_공연장 / 도시_공연장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1길 15
-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사무소: 맵스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설계자: 김성민, 류삼열



커피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도시 속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탐구한 건축 실험이다. 가로수길의 대부분 건물이 대지 경계선까지 입면을 밀어붙여 공간의 여유를 잃은 상황에서, 건축가는 오히려 매스를 뒤로 물려 배경으로 삼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 생겨난 전면의 빈 공간은 도시의 보행자에게 머무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동시에 브랜드의 무대이자 도시의 무대가 되는 ‘공연장 같은 거리 풍경’을 만들어냈다. 서울의 팽창과 획일화된 도시 구조 속에서 이 건축은 낭만과 배려, 소통이라는 감성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열린 스테이지로서 새로운 도시적 공공성을 제시한다.

5.



우수상 — 화연재(和然齋)

-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94
- 용도: 단독주택
- 건축사무소: (주)스페이스연건축사사무소
- 설계자: 이상대

과거 둔암장의 흔적과 건축주의 삶의 기억을 새롭게 읽어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주거공간을 구현했다. 대지에서 발견된 천연 바위를 마당에 재배치해 옛 둔암장의 '둔암(敦岩)'을 상징적으로 복원하고, 중심 홀과 마당을 주거의 핵심 공간으로 두어 시선과 동선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다. 천창으로 흘러드는 빛과 곡선형 복도, 곡면 유리로 둘러싸인 2층 마당은 이 집만의 고유한 정서를 만들어낸다. 가로에서는 기존 한옥 담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변 경관과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화연재는 한 가족의 삶과 서울의 근대사 그리고 장소의 기억을 현대적 언어로 다시 엮어낸 주거로,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품은 건축으로 평가된다.

6.



우수상 — 서울 SI 허브 메가플로어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
- 용도: 교육연구시설
- 건축사무소: (주)에스티엠케이건축사사무소
- 설계자: 임미정, 이승택

인공지능 산업의 연구와 실험을 위한 새로운 업무공간의 프로토타입이다.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각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성적이고 유연한 공유공간'을 제안한다. 기존 사무시설과 달리, 중앙 코어 주변에 작게 배치되던 공용공간을 확장하여 건물의 중심에 커다란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남쪽과 서쪽에는 채광이 좋은 대형 공유공간을, 북쪽과 동쪽에는 업무공간을 배치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층간 보이드와 연계된 복층 공유공간은 시선과 동선을 확장하며, 다양한 분야가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실험무대를 형성한다.

7.



신진건축상 — 그리드 149

-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8길 9
- 용도: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 건축사무소: 소수건축사사무소
- 설계자: 김미희, 고석홍

‘그리드 149’는 고층 아파트 단지와 저층 공동주거가 맞닿은 경계에 위치하며, 서로 다른 주거 유형이 공존하는 도시의 접점을 다룬 프로젝트다. 건축가는 이 경계에서 ‘생활가로의 활력’과 ‘주거의 프라이버시’라는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열림과 닫힘이 공존하는 건축적 장치, ‘양면의 그리드’를 제안했다. 이 그리드는 담장이자 창으로 기능하며, 외벽과의 사이에 생긴 여유 공간은 빛을 조절하고 일상을 보호하는 완충 영역이 된다. 사선형 대지에 맞춰 형성된 분절된 그리드는 건물의 스케일을 도시 맥락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깊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입면 풍경을 만든다. 얇은 깊이의 면에는 거실·주방 등 공적인 영역을, 깊은 면에는 침실 등 사적인 공간을 배치해 도시로 열린 주거를 구현했다.